

70. 실각경

날짜: 2월 27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78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내가 이제 몸이라는 구분[有身邊]과 몸의 쌓여 모임이라는 구분[有身集邊],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[有身滅邊]을 설명하리니,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해 기억하라.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. 어떤 것이 몸이라는 구분인가 ?

이른바 5수음이니,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? 색수음과 수수음 · 상수음 · 행수음 · 식수음이니, 이것이 몸이라는 구분이니라.

어떤 것이 몸의 쌓여 모임이라는 구분인가 ? 이른바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[當來有愛]에 기쁨[喜]과 탐욕[貪]이 함께 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이니, 이것이 몸의 쌓여 모임이라는 구분이니라.

어떤 것이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인가 ? 곧 이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 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던 것을 남김없이 끊고 다 토하며, 탐욕을 떠나고 멀해 완전히 고요해진 것이니, 이것이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이니라.

그러므로 ‘몸이라는 구분과 몸의 쌓여 모임이라는 구분과 몸

의 소멸이라는 구분을 설명하리라고 한 것이다.”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
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